

김한길표 정치혁신 3탄 ... “비리 혐의자 배제” “상향식 공천”

■민주당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결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난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 혁신안이다.

당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자격 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한다. 다만, 정치적 보복이나 편파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별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위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화뉴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중장기적 추진

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 후보

“참신·차별성 없다” 지적 콘텐츠보다 추진력 중요

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정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재철 전략홍보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런 원

칙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혁신안이 앞서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된 정치개혁 과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참신성에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때문에 김 대표에게는 혁신안의 ‘콘텐츠’보다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추진력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 6·4 지방선거 확대경

“당선만 된다면 미신인들 어찌랴”

占

지방선거 앞두고 점집 문턱이 닳는다

“유명 관상가를 초빙해 조연을 듣고, 풍수지리 따라 수년째 이사를 안 가고, 당선 가능성이 큰 이름을 새로 얻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날을 점지기 위한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점(占)집 문턱이 닳고 있다. 유명 종교인의 말에 따라 지리산에 오르고, 개명을 하는 등 후보들의 ‘미래 내다보기’ 노력(?)도 다양하다. 새정치연합의 가세로 광주·전남 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당달아 불안해진 후보들이 많아 올리는 점집이 더욱 문전성시다.

왕이 될 상을 정확히 골라내는 영화 ‘관상’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A 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서울에서 초빙한 유명 관상가가 참석해 상을 봤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앞날을 점집게쳐들 알아봤다’는 이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라 이뤄진 만남이었다.

한편 정치와 점에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라 이뤄진 만남이었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둔 B 후보는 현재 살고 있는 22년 된 낡은 아파트를 올해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정치인이 2번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지만 이사를 한 뒤 치른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당선 신화’의 기를 받기 위해 이사를 뒤로 미룬 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름을 바꾼 뒤에도 연봉자로 거듭난 프로야구 무명선수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듯, 지역 정가에서도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지명도가 생명의 출마 예정자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명 한 사람도 생겨났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C 후보는 “현재 이름은 남만 도와주기 때문에 개명하라”는 역술가의 말에 따라 이름을 새로 지었다.

죽집계 관상가 캠프 초빙
풍수 좋다니 이사도 미뤄
역술가 말 믿고 개명까지

또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 공식이 되는 흥선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D 후보도 최근 고교 동창들과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그의 지리산행은 평소 믿고 따르던 한 종교인의 “지리산에 올라 기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 때문이었다.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한 역술인도 최근 광주에 분점을 내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점집 특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술인은 1주일에 3일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상주하면서 점을 봐주고 있다.

한편 정치와 점에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라 이뤄진 만남이었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둔 B 후보는 현재 살고 있는 22년 된 낡은 아파트를 올해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정치인이 2번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지만 이사를 한 뒤 치른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당선 신화’의 기를 받기 위해 이사를 뒤로 미룬 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상향식 공천 하자니 당원이 없고 기초 무공천 하자니 세력화 차질

■새정치연합 ‘속앓이’

다음 달 총선을 앞둔 새정치연합의 후보 공천 방안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후보 공천 방안을 포함한 당헌·당규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중순까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에 총선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일단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안 마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당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원 경선이 가능한 지역은 호남과 수도권, 충청 일부 지역이 꼽히고 있

다. 반면, 영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당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경선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 당원·일반시민 참여, 배심원단 경선, 당원 경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당세가 취약한 지역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신생 정당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당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공천방안을 당헌·당규에 마련, 신속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당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막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세력화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오히려 부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생 정당이라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주력해야 하며 전국적인 기초단체장 선거는 승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달 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민주당의 움직임 등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의원입법도 ‘페이코’ 도입 추진

발의 때 재원확보 방안 제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코(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과 정부·청와대가 함께 ‘페이코’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페이코’ 원칙이 적용돼 재원 마련 대책과 예산 추계안 등을 포함하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은 부분별한 포퓰리즘적 입법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제도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페이코’ 도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챙겨 묻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코 관련법들을 묶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이한구·이만우·이완영 의원이 제출한 페이코 도입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국 의회는 재정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던 1990년대 초반에 페이코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 의회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의원 입법의 자율성이 침해되므로 정부 입법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 출발 장가계직항
(3/28~5/30까지 적용)

(무안출발 16시10분) - (무안도착 14시 50분) /
금요일 출발 3박 4일 / 월요일 출발 4박 5일

[실속] 장가계 3박 4일 959,000 원~

[품격] 장가계 3박 4일 1,059,000 원~

[실속] 장가계 4박 5일 989,000 원~

[품격] 장가계 4박 5일 1,089,000 원~

제주 (OZ,KE) 호남지역출발 [1월~3월까지 적용]

선박패키지 149,000 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 원~

항공패키지 259,000 원~

♥특별상품♥ 유류세포함 [2014.3.1~6.30 적용]

[품격] 푸켓 5일 (전통인마, 팜아만씨카누, 코끼리트레킹/3대특식포함) 799,000 원

[품격] 푸켓 6일 (전통인마, 팜아만씨카누, 코끼리트레킹/3대특식포함) 949,000 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3월출발- 949,000 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4월출발- 929,000 원

♥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품격) 더비짓프라임플빌라 1,630,000 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플빌라 1,840,000 원

보라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 원

카이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 원

(정통) 크림스디럭스 1,310,000 원

세부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 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 원

동남아 [선착순 특가 적용]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센레스토랑 포함 5일 499,000 원~

[앙코르왓] 핏링 IN 캄보디아 5일 649,000 원~

[싱가포르] 싱가포르/조호바루/바탐 5일 829,000 원~

자유투어 ONLY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사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1,390,000 원~

고객만족위/고객 송출위 동유럽 6국 9일 1,590,000 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890,000 원~

중국 [홍쇼핑 大 HIT상품]

북경 웨라톤호텔+VIP리무진 4일 369,000 원~

성도/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일/6일 399,000 원~

메리어트호텔 3박+플옵션 상해 4일 399,000 원~

일본 [방학특선 & 홍쇼핑 HIT]

[홍쇼핑HIT] 선상크루즈 미야자키+벵부 5일 279,000 원~

[일본3대여행] 후쿠오카 아소 나가사키온천 3/4일 299,000 원~

[NO오피스]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3일 399,000 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이+스노쿨링 6일 1,190,000 원~

[실속 5 Star 항공]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190,000 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590,000 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광천점 062)512-1713

충장점 062)251-6166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금)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